

경포호의 옛모습 추정

- 기록자료를 중심으로 -

김태경

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The Past Landscapes of Gyeong-Po Lake

Kim, Tae-Kyu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Due to the pressures from surrounding conditions, the current Gyeong-Po Lake has been losing its original appearance. Historically, the value of Gyeong-Po Lake has been highlighted at the Ru-Jeongs, which were once used to enjoy the various lakeside landscapes. However, the changes in physical appearance of the lake surroundings have ruined the value of the Ru-Jeongs, and even more changed the view point. As an initiating effort to reestablish and to manage the traditional visual landscapes of the lake, this study puts its emphasis on the traditional point of view. Also,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traditional visual values that are not visible at the current time, based on historic literature such as historic documents, paintings and poems. One of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viewing the different landscapes was more highly valued than their physical configurations in historic literatures, and that the focal points in viewing landscape were the Ru-Jeongs(樓亭). H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set the Ru-Jeongs, including Gyeong-Po(鏡浦), Bang-Hye(放海), Hwan-Sun(喚仙), and Ho-Hae(湖海), as the focal points for viewing the landscapes in order to reestablish and manage the traditional landscapes of Gyeong-Po Lake.

Key Words : Traditional View, Lakeside Landscape, Ru-Jeong, Seunggyeong, Gyeongmul, Gyeongsaeok

1. 서론

1. 연구의 목적

경관을 바라보는 눈은 많은 객관적인 기준설정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의적인 태도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경관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많은 논의가 뒤따르고 있다. 또한 시대 혹은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아서 형태에서의 항상성이나 의미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가변성은 모든 시대와 사회에서 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정분야에서는 사조(-ism, style;stilus)라는 말로 일축하고 있다. 하나의 사조에서 다른 사조로의 전이는 눈에 띄일 정도로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어 수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역사의 전개과정은 항상 은근한 변화만으로 일관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계기에 의하여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변화는 많은 경우 단절의 형태를 취하기 쉬운데 그 원인은 변화에 대한 적절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그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필연성을 가진다. 역사성을 가진 도시의 많은 경우에서 이러한 단절현상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는데, 강릉도 그러한 경우의 하나이다.

경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수단이 효율적이지만 경관이 갖는 평가대상으로서의 모호성은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본 연구는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의 속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강릉 경포호의 가치는 승경을 감상했던 누정에서 가장 빛을 발했고, 따라서 현재의 경관 역시 그들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지역경관의 이해를 위한 기초단계로서 기록자료를 이용하여 경포호와 주변의 옛경관을 당시의 시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경관을 바라보는 방법을 과거의 시점에서 찾고자하는 시도로서 전통성이 강한 도시에서의 경관관리에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대상지 개요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관련자료를 통한 추론단계와 여기서 추출된 단서의 현장내 검증단계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는 단서수집을 통해 경포호의 옛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1차 범위를 한정했다. 단서의 기본은 각종 기록자료를 통해 찾을 수 있는데 임영지 및 증수임영지로 전해지는 읍지와 고려말부터 조선중기까

지의 시문, 그리고 김홍도 및 정선 등의 회화 8작품이 주요 분석대상이 되었다. 경포호의 주변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누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의 누정은 특히 풍류와 많은 연관이 있어 비교적 풍부한 시문이 남겨져 있으므로 당시의 경관을 추정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다. 지형과 수계의 변화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는 명치44년(1911년)의 지형도와 대정4년(1918년)의 지형도 그리고 1998년의 지형도를 이용했고, 자연퇴적에 의한 변화상태를 가정하여 과거의 모습을 추정하는데는 수치지도상에서의 수면 높이를 조작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포경관의 음미를 주요 목적으로 조영되었던 누정의 연구가 필수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누정에서 경포호의 경색을 원경까지 관찰할 수 있는 시계권이 연구의 물리적 한계로 자연스럽게 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시간적 한정은 큰 의미를 갖지 않으나 이것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승경감상을 주요목적으로 누정이 조영되었던 최후의 시점까지로 한정하였고, 추정의 최초시점은 경포호의 모습과 관련된 기록이나 흔적을 선교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이 건축물이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750년대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직의 부산물로 조영된 누정은 제외하였으며 관에서 주도하여 조영하였거나 사립의 선비들이 경치를 감상할 목적으로 조영한 누정을 중심으로 경관의 내용과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2) 대상지 개요

우리나라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백두대간은 완만한 서측의 지세와는 대조적으로 동측으로는 급경사를 이루며 동해와 접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지맥은 동측으로 뻗어 있고 이러한 지맥과 지맥 사이를 흐르는 하천을 마주보며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사천천 남쪽 지맥과 남대천 남쪽 지맥 사이에 형성된 것이 현재의 강릉시가지이다. 또한 이 지역은 바다와 접하기 전에 많은 석호를 형성하고 있는데, 고성에서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에 이르는 영동지방에는 수 십개의 호수가 산재한다. 해발 천미터를 상회하는 대관령이 급경사로 내와 동해와 접하며 가장 큰 평탄지를 형성한 곳

이 강릉이며 이 일대에서 가장 큰 호수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참조).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관동지방은 지리적 여건상 해안을 가까이 해서 백두대간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는 도로망과 그에 수반되는 역원이 조영되었는데, 역은 고려시대부터 노정(路程)의 3십리를 전후해서 설립되고 부수적으로 누정이 설치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며 누정의 특성상 승경이 좋은 곳이 선택된다(최중현, 2000). 신증동국여지승람 강릉대도호부 누정조에는 모두 12개의 누정기록이 있으며, 여지도서 강릉부 누정조에는 16개의 기록이 나타난다. 1997년 강릉문화원에서 조사된 누정의 수는 총 68개로 21개가 현전하고 있으며, 이 중 11개는 19세기 이전에 건립되었고 나머지는 20세기에 들어서 건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경포호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13개의 정자가 들어서 있을 만큼 이곳은 수려한 승경의 대표지라 할 수 있다.

경관분석적 측면에서 본 관동의 승경은 백두대간을 뒤로하여 바다를 향하는 모습을 취하는데, 여기에는 연해 주변의 근경과 바다의 도서나 산등성이의 중경 그리

고 바다라는 원경을 가지며 승경지 주변의 누정에 인접해 있는 바위, 수목 등의 점경물을 제외하고는 전후좌우의 근·중·원경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최중현, 2000). 경포호를 중심으로 본 이 지역은 서측으로는 대관령의 위요경관, 동측으로는 동해를 배후로한 수평경관, 남측으로는 초당의 소나무가 연속된 수평경관을 이루고 있다.

II. 경포의 경관

1. 경포의 경관변천

경포의 경관은 경포호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경포호수 역시 모든 호수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퇴적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선교장(船橋莊: 배다리집)이 지어졌던 시기의 호수둘레는 현재의 3~4배인 약 30리¹⁾에 이르렀다고 하며, 1900년대 초의 길이는 약 7.6km에 이르러 있어 현재의 2배 가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

周面三十里甌山之下江門浦之邊陸水海水相通而成湖水...

〈臨瀛誌〉卷之一, 鏡浦臺

경포호의 변화는 많은 과정을 거쳐왔지만 경관이나 호수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시기는 근대화정책에 따른 도로개설과 제방축조가 있었던 1960년대 말로 전후로 한다. 도로가 자연스럽게 제방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호수의 북측인 안현동과 저동일부 그리고 남측의 초당동은 주거지와 농경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선교장의 건축연대인 18세기 중반²⁾에서 일제시대까지의 상황은 자연적 퇴적의 진행에 의한 축소였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현재의 모습은 1960년대말 경포주변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시행³⁾되었던 순환도로의 개설 결과로 볼 수 있다. 호수 남측의 초당동 부근에는 경포천과 운정천이 흐르고 있어 최소한 50여년 이전까지만 해도 호수의 수량조절 역할을 하였는데, 제방축조로 인하여 물의 유입이 단절됨에 따라 수량이 감소하고 연쇄적인 현상으로 수질이 오염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1970년에는 호변 6km의 도로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왕벚나무 경관으로 변모하였으며, 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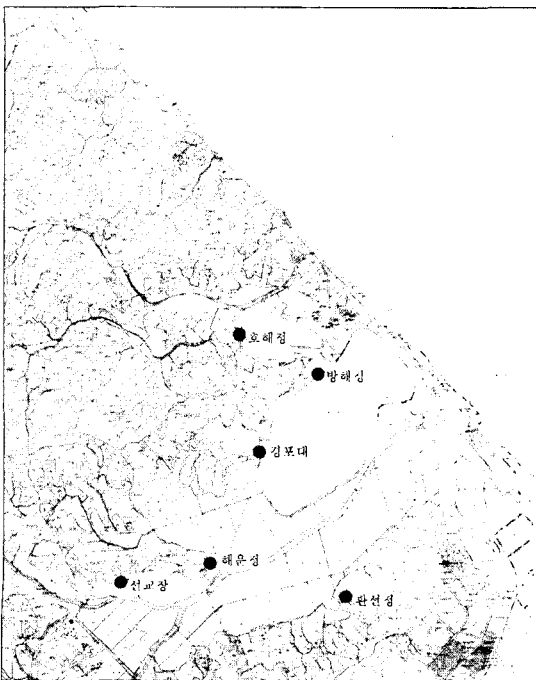


그림 1. 경포호 주변 현황도

봉에는 민자를 유치하여 현재의 현대호텔이 들어섰다. 이러한 사업은 바다에 인접한 지역이 도립공원의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되면서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수평의 경관속에 수직적 요소가 도입되고 자연적인 모습이 인위적인 시설과 혼재되고 전통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중 호수를 에워싼 순환도로의 개설은 호수를 감상하던 수단으로서의 누정에서 누정자체가 감상의 대상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 호수면적의 축소는 호해정 등 일부 누정의 존재의미를 상실케 하였다.

2. 경포의 경물과 경색

樓亭臺는 사람들에게 승경을 관조하고 느끼게 함으로써 장소의 의미가 부여되고 건축적 조형행위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최종현, 2000)으로 이는 누정의 명칭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관어정(觀魚亭), 경포대(鏡浦臺), 호해정(湖海亭), 망양정(望洋亭) 등에서 보듯이 누정자체의 물질적 가치보다는 그곳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승경에 보다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경포대는 지역의 명칭을 누대에 직접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누대에서 바라보는 호수와 바다의 모습을 명칭에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누정이 최초로 건립되었던 위치와 현재의 위치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경포대에서 보는 이 지역의 경치는 '제일강산(第一江山)'이라는 대명사를 얻을 만큼 수려하다. 이중환의 택리지⁴⁾, 허균의 학산초담⁵⁾, 임영지와 증수임영지, 안축의 경포대기문⁶⁾ 등에는 이 지역의 승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안축은 경색(景色)으로서의 경포를 으뜸이 되는 경승지로 삼았다⁷⁾.

이들 자료에 따르면 경포호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지역의 승경은 대관령, 바다, 경포호수, 죽도봉, 강문, 송림, 가리바위, 홍장암, 조암 등이 경물의 주요소가 되고 있고, 호수변의 경포대, 해운정, 호해정, 한송정, 환선정, 인월사 그리고 초당마을 등이 부가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의 아름다움은 경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해무(海霧), 해운(海雲), 연무(烟霧), 낙조(落照), 어화(漁火), 야우(夜雨), 다섯 개의 달 등이 해당된다.

III. 옛경관의 단서

1. 문학과 경포 그리고 유적

경포의 주변에는 많은 누정이 자리하고 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누정은 조선말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최근 세에 지어진 것이지만 기록 등의 흔적을 통해 보면 오래 전부터 이곳을 중심으로 누정의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누정은 풍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당시 이곳을 드나들던 문사의 시문이나 누정기 등은 과거의 경관을 추론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있다.

1) 선교장(船橋莊)

선교장은 그 명칭으로 인하여 과거의 호수를 추정하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정확한 호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배다리집'으로서의 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호수와 접했거나 최소한 시각적으로 근거리에서 위치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선교장의 부속건축물인 활래정이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연못에 걸쳐 세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선교장 본 건물 전면부까지 호수가 붙어 있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현재의 연못이 경포호의 후퇴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는 표고 10미터의 높이에 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근우의 시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공간이 호수와의 사이에 존재했던 근거가 되고 있다.

하나의 구역을 이룬 샘과 돌 그리고 솔과 대나무(一區泉石又松篁)

...중략...

안개속 노거수 우뚝 서 있고(烟沉老樹庭除暗)

2) 해운정(海雲亭)

해운정은 경포호수 서쪽의 산기슭 끝자락에 위치한 별당으로 조선시대 상류계층 주택의 별당건물이다. 동측으로는 경포대, 서측으로는 선교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포호수와 함께 죽도봉과 초당의 소나무 숲을 마주

하고 있다. 기록에 남은 명칭의 유래는 찾을 수 없으나 이 지역의 4~5월 즈음에 바다와 호수 그리고 육지부인 대관령의 기온차로 인하여 바다의 안개가 호수의 한가운데에 걸치는 장관이 펼쳐지는데, 일시적 경관이라 할 수 있는 바다안개가 이 정자의 이름으로 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호수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嘉靖)16년(1537) 명나라에서는 황세자의 탄생을 알리러 공용경(龔用卿)과 오희맹(吳希孟)을 파견하였고, 이 정자의 건립자인 심언광(沈彦光)이 이들을 접대하면서 경포대와 호수의 빼어난 경치를 설명하고 시 한 수를 부탁하여(임영지, 권1) 다음과 같은 시문을 남기고 있다.

거울같이 해맑은 평평한 호수 (湖水平如鏡)
 고요히 바다로 흘러 들어가 (冥冥滄海通)
 호수 빛 되비치어 언덕 뿌영고 (潮光迷岸白)
 고기잡이 불빛은 파도를 타네 (漁火射波紅)
 난간에 기대어 새들을 보고 (倚欄看歸鳥)
 물가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세네 (臨磯數去鴻)
 시골에 머물며 만족해 하니 (村居原自得)
 갈매기와 벗한 뜻 이제 알았네 (知是對鷗翁)

현재는 농지로 변모하여 호수를 직접 접하기 힘들지만 이 시문을 통해 정자와 호수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3) 경포대(鏡浦臺)와 한송정(寒松亭)

경포대는 경포호의 중심이라 할 정도로 이 건축물에는 호수와 주변의 경치를 읊은 많은 시문이 남겨져 있다. 위로는 세조나 숙종 임금으로부터 박신, 박수량, 안축, 김극기, 조하망, 심언광 등의 관료와 김시습과 같은 학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문이 전할 정도로 경포대에서 보는 경포의 경치는 이곳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이들 가운데 안축의 관동별곡에서는 호수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위치한 한송정⁹⁾을 경포대와 견줄 수 있는 승경 감상지로 삼고 있다.

삼한의 예의, 천고의 풍류 간직한 옛고을 강릉에는
 (三韓禮義 千古風流 臨瀛古邑)
 경포대, 한송정에 달 밝고 바람 맑은데
 (鏡浦臺 寒松亭 明月淸風)

해당화 길, 연꽃 핀 못 좋은 시절에
 (海棠路 菡萏池 春秋佳節)
 아, 노닐며 감상하는 모습 어떠합니까
 (爲 游賞景 幾何如)
 등명루 위에서 오경의 종이 울린 후에
 (燈明樓上 五更鍾後)
 아, 일출의 모습 어떠합니까 (爲 日出景 幾何如)

경기체가 형식으로 남아있는 이 글에서는 경포대와 한송정을 이곳의 승경을 바라보는 핵심으로 놓고 있는데, 당시의 주변 경치에 대해서는 임영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경포대는 강릉부 북쪽 10리 되는 곳에 있으며, 둘레가 30리나 되었다. 물빛이 깨끗하고 맑아서 마치 새로 만든 거울과 같았으며, 호수의 동쪽 일대에는 모래언덕이 자리잡고 있어 호수와 바다의 경계가 되었고, 이 모래 언덕 밖에는 드넓은 동해의 검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모래사장 안쪽에는 흰칠한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숲 사이로 인가가 은은하게 보여 경포대의 뛰어난 경치를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다. 서쪽으로 한 산봉우리가 있고 봉우리 위에 석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라 선인 영랑이 악을 달이던 것이라 한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호수 물이 거울같이 맑고 깊지도 얕지도 않아 겨우 사람의 어깨와 등만 잠길 정도였으며, 사면과 중심부가 한결같고, 서쪽에 산봉우리가 있는데 봉우리 위에는 대(臺)가 있다. 대 주변에는 악을 달이던 석구가 있었다. 호수의 동쪽 포구에는 널빤지로 된 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강문교(江門橋)라 하였다. 다리 밖에는 죽도(竹島)가 있고 죽도 북쪽에는 해맑은 모래사장이 5리나 길게 뻗어 있었다. 모래사장 너머에는 맑은 바닷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으며, 이곳에서 해 뜨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경포대의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라 하였다¹⁰⁾.

한송정은 오래 전에 유실되어 현재는 찾을 수 없고 위치만 전해지고 있는데 2수의 흥장 시문¹¹⁾에 나타나듯 배를 이용하여 경포대까지 오갔음을 보면 이곳 역시 호수의 한 쪽에 연해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장연우의 시문을 통해서도 다소 추측이 가능하다.

한송정 달 밝은 밤에 (月白寒松夜)

물결이 잔잔한 경포의 가을이라 (波安鏡浦秋)
 슬피 울며 오가는 (哀鳴來又去)
 소식 실은 한 마리 갈매기 (有信一沙鷗)

지금까지는 이 누정의 위치가 현재 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비행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의 직선거리가 8km 이상 떨어져 있고 호수와의 사이에 2개의 능선이 가로지르고 있어 위의 시구절들이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시간적인 관계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포팔경¹²⁾의 하나인 녹두일출¹³⁾은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일출광경을 뜻하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경포대의 정동쪽에 있는 한송정의 상징적 가치 표현이라고 하겠다.

4) 호해정(湖海亭)

경포호수 북쪽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호해정은 당초 강릉현감 김지의 후손인 김계운이 창건하였으나 사위에게 상속되면서 태허정(太虛亭)이라 명명되었고, 몇 차례의 상속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실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매월당 김시습에 의해 건립됨으로써 최초의 건립 시기는 15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건축물은 영조26년(1750)에 신만의 증손인 진사 신정복이 건립하였다. 현재의 명칭인 호해정은 언덕에서 바라보는 호수와 바다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최초의 명칭은 장자의 사상을 빌어 호수를 하나의 소우주로 상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허는 중국사상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주의 본체 또는 기의 본체를 뜻하는데, 기일원론(氣一元論)의 입장으로 이를 주장한 사람은 송나라의 장횡거(張橫渠)이다.

‘태허’는 기의 본체로 ‘태허즉기(太虛卽氣)’라 한다. 기는 태허에서 생기고 모여서 만물을 생성하며 기가 흩어지면 함께 만물은 소멸하나 기는 다시 태허로 돌아간다. 즉, 기가 흩어진 모습이 태허이다.

張橫渠, 〈莊子〉知北遊篇

현재의 호해정에서는 호수를 볼 수 없으나 정자 명칭과 몇몇 시구절을 통해 볼 때, 당시의 호수가 이 누정까지 근접하였거나 최소한 이곳에서 호수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넙실대는 푸른 물결 바다와 통하고 구름 속에 묻힌 산 아득하게 호수 들렀네. 중략<옥산(玉山) 이우(李

瑀)>¹⁴⁾

늘그막에 뜻을 붙인 검푸른 동해 …… 호수에 달이 비쳐 영상이 곱네. 중략<옥산이 지은 시에서 차운하다>¹⁵⁾
 물결에 어리비친 옛 모습 보니 그 옛날 감회가 없을 수 있다. 중략<어촌이 지은 시에서 차운하다>¹⁶⁾

5) 방해정(放海亭)

방해정은 조선조 철종10년(1895)에 강원도 통천군수를 지낸 이봉구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객사의 일부를 헐어다가 선교장의 부속별장으로 지은 건물이다. 경포호변에 있는 정자 중 유일하게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집앞까지 호수여서 대청마루에 낚시를 드리우고 놀았다고 하며 출입할 때는 배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누정부지의 경계역할을 하는 담장을 낮게 설치함으로써 건너편의 경포호와 초당술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입문은 남쪽과 동쪽에 각각 한 개씩 두었다. 배를 타고 출입을 했었다는 구전기록과 호수의 위치로 보면 남측 출입문이 이에 해당될 것이며, 동쪽의 출입문은 보행용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현존식생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6) 환선정(喚仙亭)

1500년대 말에서 1600년대 초 사이에 건립되었을 것이라 추정¹⁷⁾ 되는 환선정은 지금은 유실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으나 위치는 호수 남쪽 모안이굴이라는 곳인데, 이 지명의 의미는 ‘못 안에 있는 굴’이라는 뜻으로 정자와 물과의 관계를 추정케 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정자 밑에 못이 있었다는 의미로 보는 견해(김기설, 2001)도 있으나, 이것은 특정장소나 시설을 나타내는 명사적 표현이므로 당시의 지역상황을 설명하는 서술적 의미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오히려 못(호수)에 둘러싸인 마을 혹은 시설로 보는 것이 보다 유연한 해석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환선정 역시 호수변에 세워진 정자로서 건너편의 경포대와 마주보는 형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부사 정경세(鄭經世)의 시¹⁸⁾에서 얼마간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림같은 환선정이 구름 밖에 솟았으니
 봉래산 신선들을 불러도 되겠구나.
 밤늦도록 술마시고 촛불을 물리고 나니

휘영청 밝은 달이 호수에 넘실대네.

2. 회화속의 경포

현존하고 있는 그림의 대부분은 조선중기 이후의 것으로 관동을 묘사한 그림의 대부분이 바다 원경을 정면으로 향해서 구도를 잡아 그린 것들이다(최종현, 2000). 경포대와 관련된 주변의 경치를 표현한 회화는 여러 작품이 발견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공개된 것으로는 김홍도와 정선 그리고 이방운 등의 7~8작품이 있다. 그림의 주요 관점은 경포대나 호해정 등 누정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원경으로는 바다와 대관령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경으로는 죽도봉과 시루봉이, 근경으로는 호수와 소나무림 등이 나타난다.

1) 경포대

그림의 시점은 경포대의 후면에서 호수와 바다를 향해 표현한 것과 우측면에서 대관령을 향하여 그린 것 그리고 전면에서 시루봉을 향하여 그린 것 등이다. 이 가운데 4점이 바다를 향하고 있고 2점은 대관령 그리고 1점은 시루봉을 향하고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자미상의 그림과 김오현의 <관동팔경도>

는 경포호와 경포대 그리고 죽도봉의 관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김홍도의 그림은 가장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경포대에서의 근경으로는 호수와 뱃놀이, 중경으로는 좌측의 인월사터와 우측의 초당 그리고 정면의 가리바위와 죽도봉이, 원경으로는 동해바다가 나타난다. 경포대의 봉우리와 초당 그리고 인월사터에는 소나무들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경포대의 좌측으로는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고 호수변에는 갈대가 무성하다. 여기서 표현된 버드나무는 지금은 찾을 수 없으나 일부의 지역에서 자연적인 발아로 추정되는 버드나무들이 발견되고 있어 과거의 호수를 추정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2) 호해정

그림 2의 <호해정>도는 1778년에 김홍도가 그린 작품으로 경포대의 그림과 함께 매우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선교장의 열화당이 건립된 시점보다 40여년 앞선 것으로 보이는 이 그림에서 호수와 산자락 그리고 동해의 경관이 세밀한 터치로 표현되고 있다. 호해정은 좌측 끝의 중간 부위에 그려져 있는데, 근경에서 원경까지의 주변경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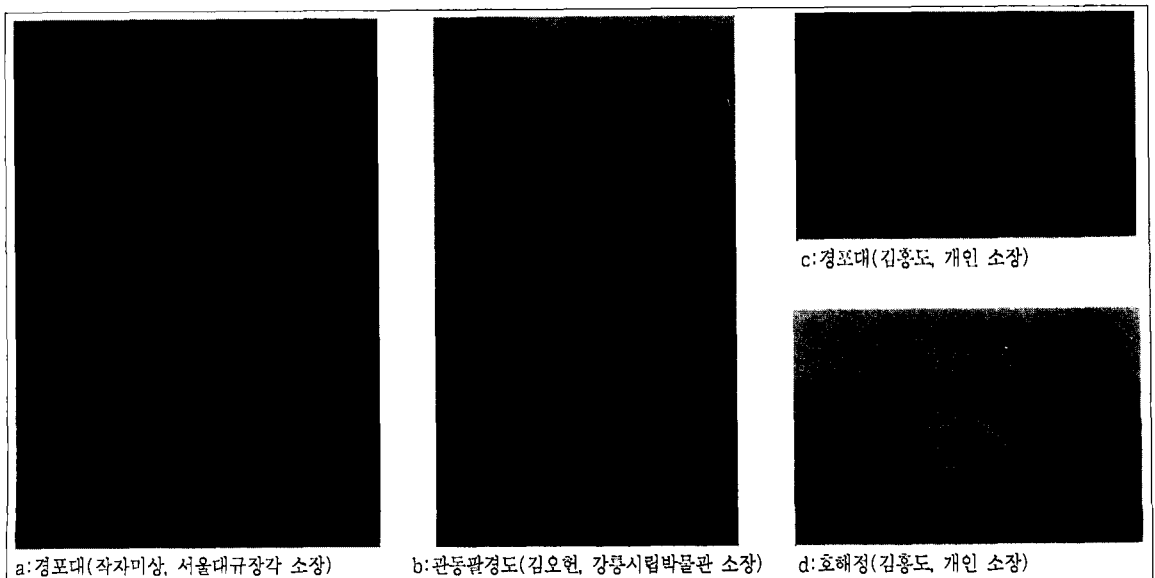


그림 2. 경포호가 묘사된 회화

추정된다. 이 그림에 나타나는 근경의 대상인 아래 부분의 배와 산자락의 갈대 그리고 중간 윗부분의 모래톱으로 보아 호수임을 알 수 있는데¹⁹⁾ 현재 호수부분은 농경지로 변모하였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근경을 이루는 부분은 오른쪽의 산자락인데, 이것은 시루봉의 끝자락으로 최초의 경포대가 위치했던 인월사터의 끝단임을 추측할 수 있다. 중경으로는 가리바위(지도상의 명칭임)로 추정되는 섬이 모래톱의 건너편에 표현되어 있으며, 그 너머로 동해바다가 원경을 차지하고 있다. 이 그림은 작품제작 당시의 호해정 전면부가 호수였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과거의 경관을 추측하는데 좋은 단서가 되고 있다.

3. 지형 시뮬레이션

1) 2000년의 지형

현재의 경포호수는 둘레길이가 약 4.3km, 면적이 약 998,000㎡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경포천과 운정천 그리고 안현천으로부터의 자연유입이 단절되고 지속적인 퇴적작용의 진행으로 유역의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주변의 지형은 1900년대 초기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호수의 모습은 19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현재의 호수는 1960년대 이후의 제방축조와 순환도로 건설로 인위적인 경관이 형성되었고, 선교장과 해운정 그리고 호해정 등의 몇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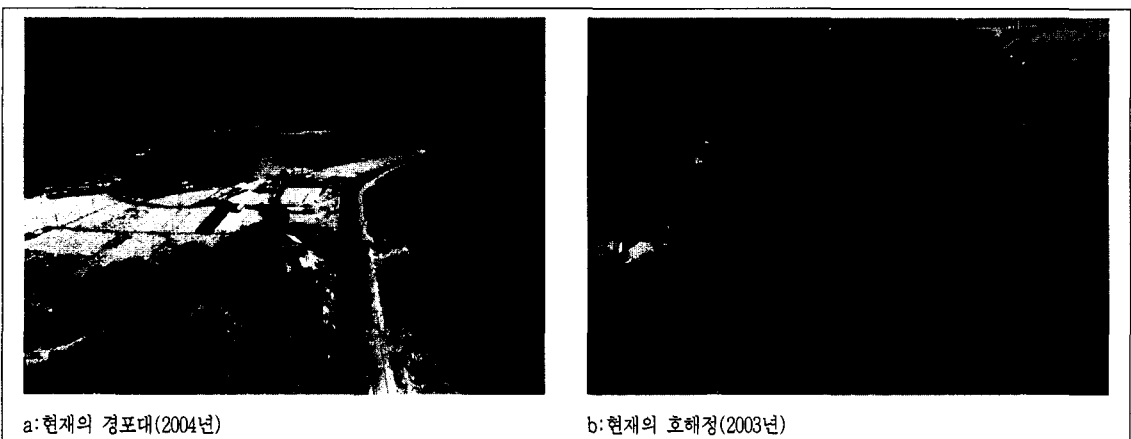
누정은 호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그림 3 참조).

2) 大正4년(1918년)의 지형

1918년의 지형도를 1911년의 지형도와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지형도상에 기록된 범례를 보면 실측한 시점이 7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그 사이의 지형변화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단지 호수의 형태가 약간 변형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호안의 일부 변형과 함께 지도작도의 오차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호수는 둘레길이가 약 7.6km, 면적이 약 1,701,600㎡로 현재보다 1.7배 정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1800년대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의 크기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의 b 참조).

3) 明治44년(1911년)의 지형

현재까지 발견된 실측지형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일제하에서 제작된 지도자료이다. 호수의 선형을 현재와 비교하면 북측과 남측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간적인 진행으로 1800년대의 선형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호수의 영역이 선교장 부근까지 이르렀던 시대에 비하여 절반 이하의 규모로 축소되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로는 당시 대규모의 토목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제방축조사업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축소의 주요원인은 퇴적물에 의한 육지화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 대한 또다른



a: 현재의 경포대(2004년)

b: 현재의 호해정(2003년)

그림 3. 현재의 경포호 주변경관

증거로는 호수의 깊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사람의 어깨와 등이 잠길 정도의 깊이라면 1.5m 내외였고 현재는 1m 수준임 보아 계속적으로 퇴적작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의 c 참조).

4) 1750년대의 지형

당시의 지형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의 제시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형의 변화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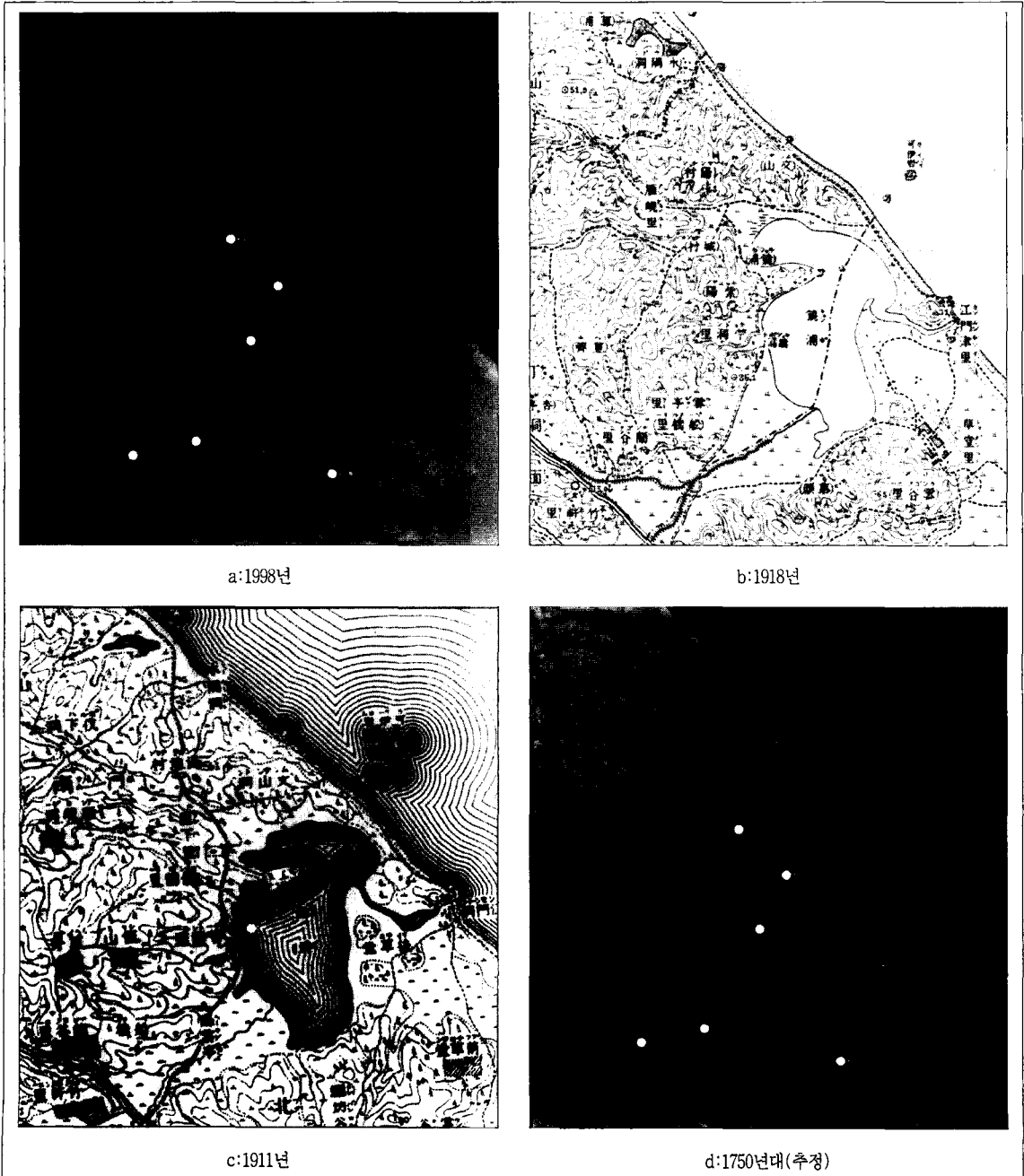


그림 4. 경포주변의 지형변화

가정하에 최근에 발행된 전자지도를 이용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당시의 모습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3차원 지형 시뮬레이션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98년에 발행(1995년 인공위성자료)한 전자수치지도를 이용하였다(그림 4의 a, d 참조).

임영지에서 말하고 있는 깊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면의 높이를 50cm 상승시킨 결과 서측으로는 선교장의 전면부까지 수면이 올라와 호수의 면적은 3,833,800㎡, 둘레가 13.934km(약 14km)로 측정되었는데, 기록자료의 수치(30리=13.56km)와 어느 정도 근접한 것으로 보아 1750~1800년대의 호수형태였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해운정은 호수에 잠기는 결과를 보였는데, 2002년 강릉지방에 있었던 대홍수 당시 이 지역이 완전침수된 사실이 시뮬레이션에서의 모습을 일부 증명하고 있다. 이 건조물이 호수 내에 있었던 증거가 없는 한 제방이나 또다른 물막이를 설치했을 것도 가능성으로 남겨야 할 것이고, 이것이 실재했다면 이 시설은 1960년대의 호수제방축조로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사라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해운정의 전면을 가로질러 흐르는 운정천의 제방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다.

현재의 모습과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위에서 언급한 선교장 지역과 북측의 호해정 주변 그리고 남측의 한송정 주변인데, 시뮬레이션 지형도에서는 이들의 전면부가 경포호를 면하고 있었음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시문이나 그림에 나타난 호수의 옛모습과 거의 일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송정은 현존하지 않으며 호수 또한 사라짐에 따라 정확한 모습을 추정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수위를 10cm 상승시킨 추정도와 50cm 상승시킨 추정도 그리고 1m를 상승시킨 추정도를 비교해보면 호수면의 형태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용된 지형도의 등고선이 5m 간격으로 표현의 한계에도 원인이 있으며, 실제의 지형이 과거의 호수면에서 변화가 없었던 것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겠다.

IV.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강릉경포호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

지침을 설정하기 위하여 옛경관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차단계의 연구이므로 결론을 짓는 것은 큰 의미는 없으나 문헌조사에 한정된 본 연구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문헌을 통해 나타난 200여년전 경포호의 모습은 현재보다 약 3~4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100여년전의 규모도 2배 가량 이르고 있었다. 200여년간의 기간동안 경포호와 주변의 경관이 변화하게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자연적인 퇴적작용에 의한 호수면의 축소로 1960년대 이전까지의 과정이 이에 해당되고, 둘째는 196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된 인위적인 제방축조와 도로의 개설 등이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자연적 퇴적작용에 의해 호수가 축소되어 초기기능을 상실한 곳은 선교장과 해운정 그리고 한송정 등이다. 이들 중 선교장은 주거가 중심이 되는 기능이고 활태정은 그에 따르는 부속건물이었으므로 호수와의 관계상실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한송정은 소실된 누정이므로 그 가치판단은 유보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해운정은 명칭과 기능에서 호수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곳에서의 경색감상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일대의 경관을 보는 주요한 조망점 역할을 하였다.

호수에 대한 인위적 축소로 인하여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곳은 호해정과 환선정이고, 일부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경포대와 방해정이다. 환선정은 유실되어 위치에 대한 유추만 가능하므로 경관적 논의는 어렵다. 그러나 호해정은 최초의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소우주로서의 호수를 조망하는 승경감상지였다. 이와 함께 경포대와 방해정은 전면의 도로개설로 인하여 경포호의 경물과 경색을 조망하는 기능에서 그들 자체가 조망대상이 되는 변질과정을 겪었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통해 경포호수변의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크게 2개의 방법적 구분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현재의 호수를 그대로 이용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경포대와 방해정이 경관조망의 중심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형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저비용의 장점은 있으나, 호수의 북측에만 조망점이 국한되므로 호수변일대의 전반적인 경관관리에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소실되었거나 기능을 상실한 누정에서의 경관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복원이나 재생 등의 과정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지형이나 도로의 일부에서 필연적인 변형이 요구되므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나 호수일대의 경관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경포호수변의 경관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단계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과정으로 남겨 두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는 기초연구 단계에서 얻어낸 옛모습을 현장조사로 증명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각 조망점에서의 경관특성을 연구할 것이다.

주 1. 4.52km×3=13.56km,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4.52km로 보는 견해와 5.4km 그리고 3.92km(도량형환산표)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간수치인 4.52km를 적용하였다. (大東地志 程里考 卷二十七 참고)

주 2. 선교장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점차 증축되어 각 건물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열화당(순조15년, 1815), 활래정(순조16년, 1816), 동별당(1877) 등의 건립연대는 명확하나 안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내번(1703~1781)이 이 건물의 터를 잡았다는 기록을 통해 1700년대 중반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 3. 1966년과 1968년에 걸쳐 3차례의 공사가 시행되었다.

주 4. 樓臺, 亭觀의 승지도 많아, …… 서쪽은 金剛, 雪岳, 五臺, 頭陀, 太白 등의 여러 산이 있어 산과 바다 사이에는 奇勝地가 많고, 골짜기 등에는 그윽하고 깊고, 물과 돌이 깨끗하여, 혹은 仙靈의 異蹟이라 전한다.

주 5. 강릉부에서 구경할 만한 곳으로는 경포대가 으뜸이요, 한송정이 다음 간다. 이곳을 구경하는 사신이 매우 많은 데도 사람 입에 전파된 가구나 경어가 하나도 없으니, 이 어찌 묘사할 절경이 너무나 무궁해서가 아니겠는가. 江陵府游觀處鏡浦爲上寮松次之使華貴者相囑而無佳句警語傳播人口者○(?)不以絕境描寫無窮……

주 6. 내 오랫동안 앉아서 가만히 보다가 막연히 정신이 집중됨을 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지극한 빛은 한가하고 담담한 중에 있고 속세를 떠난 생각이 기이한 형상밖에 뛰어나서 마음에 홀로 인면서 인으로는 형용할 수 없음이 있었다. (謹齋集 卷之1, 記, 鏡浦新亭記 중에서 '其春秋烟月莫陰晴隨時氣像變化不常此臺之大率也余久坐而冥擦 不覺漠然 神至味存乎間淡之中逸想超乎奇形之外有心獨知之 而口不可狀, 言者')

주 7. 승경에 대한 의미론적 이원본의 해석은 정인화회지 제18권 제2호의 '안축의 승경관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기 바람.

주 8. 一區石又松竈, 活靄映來半畝塘, 料理百花輪雅趣, 安排殘卷汲遺香, 烟沉老樹庭除隘, 風動淨荷几案涼, 幸得斯間無恙在, 吾生蔭德興天長

주 9. 한송정에 대한 기록은 이곡(李穀 1298~1351)의 綜亭集 권5 東遊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東有四仙碑. 爲胡宗日所沈. 唯龜跌在耳. 飲餞于寒松亭, 亭亦四仙所遊之地, 郡人厭其遊賞者多, 撤去屋. 松亦爲野火所燒, 惟石窻石池二石井在其旁, 亦四仙茶具也.'

주 10. 周面三十里甌山之下江門浦之邊陸海水相通而成湖水色澄白如新磨之鏡湖之東一帶沙岸爲湖海之限沙堤之外海波競勇(?)亦不相及沙岸之內長松成林人家隱聯皆助松之光景西有峰峰上有石臼世謂 新羅仙人永郎…… (중략)

주 11. 한송정 술을 배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술링술렁 배밀어라 강릉 경포대 달마중 가자…… (중략)
한송정 들 붉은 밤의 경포대에 물결 잔제
有信호 백구는 오락가락 호것만은
엇덧타 우리의 왕손은 가고안이 오는이

주 12. 綠葭日出, 竹島明月, 江門漁火, 草堂炊煙, 紅粧夜雨, 甌峰落照, 喚仙吹笛, 寒松竈鐘

주 13. 한송정은 녹두정의 옛이름이고 한송모종의 한송은 옛인일사인 한송사를 뜻한다.

주 14. 洪波萬頃達滄溟, 點點雲山繞杳冥, 眞宰審精開異境, 高人巖壑構名亭, 一天明月分湖海, 三島祥烟接戶庭, 有客登臨迷處所, 自疑銀漢泛槎星

주 15. 殘年活計吸東溟, 天水身心兩際冥, 度枕漁帆風拍拍, 照床湖月影泠泠, 鴻鳥小渚吞彭蠡, 鯨鰐洪濤溢洞庭, 解事玉山題品在, 古今相接幾移星

주 16. 波心匿影尙殘城, 何恨臨湖感古情, 蠻觸無憑甌山立, 鷗兔有伴草亭成, 烟雲晚夕詩將化, 天澤高低易亦行, 已是忘魚魚在渚, 釣船虛受月華明

주 17. 권칭(權稱 1580~1644)이 세움. 권칭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정평(正平), 호는 퇴곡(退谷)이다. 1627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62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성균관사예를 지냈다.

주 18. 松間詩閣出雲衢, 蓬島飛仙正可呼, 酒醒夜深揮燭退, 坐看晴月滿平湖

주 19. 김홍도의 또 다른 작품인 경포대 그림과 표현방법이 동일함에서도 확인된다.

인용문헌

1. 강릉문화원 (1997) 강릉의 누정자료집, 강릉: 전진인쇄사.
2. 강릉시사편찬위원회 (1996) 강릉시사, 강릉: 대성문화출판사.
3. 김기선 (2001) 경포호수와 그 주변의 문화, 강릉: 해담기획.
4. 박언근 (1989) 한국의 정자, 서울: 대원사.
5. 이종환 (1982) 택리지, 서울: 대양서적.
6. 임영지, 권지1~권지3.
7. 최종원 (2000) 안축의 승경관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2): 49-62.